

한컴, 메타버스 '싸이타운' 최종 앱 심사 신청

등록 2022.06.02 15:45:14

기사내용 요약

최종 앱 심사 승인 완료 즉시 출시
안드로이드버전 이틀 내 출시 예상
싸이월드와 연동..."싸이월드 사용자 유입 기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글과컴퓨터가 메타버스 서비스 '싸이타운'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최종 앱 심사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싸이타운은 지난달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시범테스트(Closed Beta Test, CBT)를 진행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앱 가심사를 이미 마쳐놓은 상태다. 이번 최종 앱 심사만 거치면 곧바로 정식 출시가 될 예정이다.

한컴 관계자는 "비교적 심사기간이 짧은 구글 안드로이드버전의 경우 빠르면 1~2일 내로도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싸이타운은 정식 출시에 맞춰 SNS 싸이월드와의 연동성을 강화했다. 싸이월드 앱에서 '싸이타운' 아이콘을 클릭하면 광장으로 연결돼 사용자들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컴은 '싸이타운'의 그래픽을 2.5D에서 3D로 고도화하고, 15개의 미니미 지원, 미니미 모션 기능, 사물 획득이 가능한 상호작용 기능 등을 추가했다. 외부 브랜드 입점을 위한 서비스 설계 작업 등도 마쳤다.

한컴 관계자는 "최종 앱 심사 승인 완료와 동시에 곧바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임직원 모두 출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